

CBS MISSION

2026. 09 Vol.21

발행 : CBS 기독교방송

후원안내 : 02)2650-7004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목동 사옥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은 부모세대가 정성껏 써 내려간 아름다운 신앙유산이 자녀세대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으며, 노트 형태와 더불어 12폭 병풍과 조각 작품, 서예 작품 등 다양한 형태의 필사 작품들이 인생의 역경을 이겨낸 필사자들의 감동적인 스토리와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새롭게하소서
주영훈 MC가 추천하는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주영훈과
둘러보기



송지은과
둘러보기

600년 전 '토라'와 현대의 '필사'가 만나는 공간



가로 70cm 세로 140cm 길이의 대형 성경필사책
(필사자 황선춘 장로와 가족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600년 된 '토라'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스페인에 거주할 당시 히브리어로 작성한 귀한 필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230여명의 필사 작품과 600년 전 필사본이 만나는 이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세대와 공간을 넘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전시관은 총 5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 동선은 '어떤 계기로 필사를 시작했는지'의 간증이 담긴 1관 "손으로 묵상을 시작하다"를 지나, 수십 년 동안 매일 같이 필사를 이어온 성도들을 만나는 2관

"성경필사, 삶의 일부가 되다"를 거쳐 깜짝 놀랄만한 예술작품들이 모여 있는 3관 "같은 말씀, 다른 고백"에 이르는 순서입니다. 이쯤 오면 관람객들은 "규모와 작품이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성경필사를 하면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이들의 간증 스토리를 만나는 4관 "인생의 깊은 골짜기,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가득한 5관 "믿음, 최고의 유산"까지 관람하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고난을 극복한 필사자들의 간증 신앙의 본질을 일깨우다

대한민국 성경필사 전시회가 특별한 것은 모든 작품에 ‘신앙고백’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완성된 필사자들의 간증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은 석창우 화백은 의수 갈고리 끝에 붓을 걸어 성경을 써 내려갔습니다. ‘두 팔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석 화백은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개관예배에서 대형 화선지에 글과 그림을 그리는 특별순서를 맡아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전신마비의 고통 속에서도 입으로 펜을 물고 성경을 써 내려간 박완금 권사의 사연은 말씀이 지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펜을 물고 성경을 쓰는 박완금 권사

소망교도소 수용자들의 간절한 회개 & 어린이들의 공동 필사

이번 전시회에는 특별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수용자들’의 필사작품과 간절한 회개의 고백을 만날 수 있는데요. 수용자들은 필사를 하는 동안 어리석고 교만하며 남을 미워했던 자신을 발견하고는 눈물로 회개했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이밖에도 교회별 공동필사 작품들도 있는데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공동필사와 성도



개관예배에서 ‘수목 크로키’를 선보인 의수 화가 석창우 화백(좌) / 석창우 화백의 성경필사 작품(우)



이밖에도 전시장에는 말씀을 써내려가며 기적을 경험한 필사자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폐암 말기로 4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장근수 집사님은 2007년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10번 쓸 때까지만 살려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12번째 성경을 쓰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김용복 집사님은 시각장애인을 돕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글씨를 크게 확대해가며 성경을 토박토박 옮기셨습니다. 특히 시편 쓰는 것은 너무 좋아서, 앞으로 100번 쓰는 것이 목표라고 하시네요.



석창우 화백
개막식 공연 바로 보기



전신마비 박완금 권사
뉴스 바로 보기

“전 세계 단 하나 밖에 없는 성경필사에 참여하세요”

관람객들이 한 줄씩 성경을 써 전체 한 권을 완성하는 ‘**이여 쓰는 성경필사**’ 체험공간은 늘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관람객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절씩 써내려가는 중인데요. 한 절을 쓰고,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먼 훗날 CBS가 성경필사전시회를 다시 열게 된다면, 이 공동 필사작품도 멋지게 전시 되겠지요.



체험공간에서 성경을 쓰고 있는 가족 관람객

비기독교인도 감동시킨 전시회

전시장에 마련된 관람 소감을 적는 방명록에는 관람객들의 감동적인 관람 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게 되었다’라는 내용과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전시에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른바 ‘N차 관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받은 감동을 나누기 위해 지인들과 재방문 하는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전도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전시회랍니다.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관람 및 예약 안내

장 소 | CBS 본사 20층 전시장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관람 시간 | 화요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휴 관 일 | 공휴일 및 월요일 (일요일은 20인 이상 단체 예약 시 관람 가능)
*일요일 관람은 최소 1주일 전 **예약 필수**(홈페이지&전화)
관람 혜택 | 단체 관람 예약 시 도슨트 투어 제공
단체관람 예약 및 문의 | 02-2650-7803, 7942 / 010-4305-6653(문자 가능)



60초로 전하는 다음세대의 목소리

제2회 CBS 숏폼 공모전

2025 제1회 공모전을 뜨겁게 달군 235팀의 열기

2025년 9월, CBS는 다음세대를 향한 마음을 담아 처음으로 숏폼 공모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음세대가 만들고, 함께 즐기는 크리스천 콘텐츠!”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회 공모전에는 무려 235팀이 참가해 총 390편의 빛나는 숏폼 콘텐츠를 출품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세대를 품고 신앙을 나누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30초~3분 길이’의 영상 속에 각자의 진솔한 고백을 담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두 달 동안 접수된 작품들은 3주에 걸친 치열한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CBS 심사위원들과 외부 전문가 두 분이 공정한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했고, 유튜브 채널 <씨베스 놀이터>에서 인기상 투표도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12월 8일 수상작이 발표됐고, 12월 23일 CBS 예배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약 90명의 수상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대상 1팀(상금 300만 원)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최다출품상, 장려상까지 총 24팀이 2,000만 원의 상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상작은 CBS TV와 유튜브 채널 <씨베스 놀이터>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일정표



성지순례
미리보기



제1회 공모전은 1030세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할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다채로운 주제와 표현 방식이 담긴 출품작을 통해, 다음세대가 언제나 각자의 고백과 이야기를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0초로 표현하는 신앙

제2회 공모전 “나는 크리스천”

2025년 제1회 공모전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CBS는 올해 2026년에도 제2회 숏폼 공모전을 정례 행사로 이어갑니다. 이

제1회 CBS 숏폼 공모전 수상작 바로보기



대상 수상작



최우수상 수상작

번 제2회 공모전은 CBS의 핵심 아젠다인 <믿음, 최고의 유산>을 바탕으로, 다음세대의 신앙 성장을 돕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나는 크리스천(I'm a Christian)”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모습부터 그 이유와 고백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1회 공모전이 ‘다음세대가 즐기는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넓은 주제였다면, 이번 제2회는 개인의 신앙 고백과 정체성에 더욱 깊이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입니다.

참가 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길이는 1분 이내로 더욱 압축되었으며, AI 도구를 활용한 제작도 허용하되 사용한 도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더했습니다. 접수 방식 역시 홈페이지 신청서 제출뿐만 아니라, 개인 SNS 채널에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을 올려 참가자분들의 콘텐츠가 세상에 더욱 확산되도록 기획했습니다.

공모전 일정은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주간 접수를 받고,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1·2차 심사를 거쳐 11월 25일(예정)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수상자들의 순위는 시상식 현장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2026 CBS 그리스-로마 성지순례

바울을 따라 걸으며 선교 사명을 새롭게 하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를 주제로 매년 성지순례를 떠난 CBS가 2026년 가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지를 찾아갑니다.

환상 속에서 마케도냐로의 부름을 받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혔던

‘그리스’에서부터 복음의 완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대서사시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직접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지순례 기본 정보

기간 : 2026년 11월 1일(일) ~ 11월 12일(목) [10박 12일]
비용 : 539만원 (변동 가능)
주최 : CBS
주관 : (주)칼릴리 여행사
문의 : 02-775-5400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관람객 방명록 -

"너무나 부끄러운 믿음 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믿음의 도전을 받고 갑니다."

-황희만 장로-

"저는 무교입니다.
그러나 CBS성경필사전은 제 가족, 주변 지인에게 모두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균선-

"성경필사가 '단순히 글을 써 놓은 거겠지'라고 했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명-

"두 손과 발이 있음에도 여러 이유를 붙이며
필사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주은-

일시 | 2026. 4. 6(월)~12. 31(목) 장소 | CBS 본사 20층 전시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개관 | 오전10시~오후5시(화~토) 휴관 | 공휴일&월요일 일요일은 20인 이상 단체 관람 가능 (예약 필수)

문의 | 02-2650-7803 / 7942
010-4305-6653 *문자가능*

주최 | CBS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재)대한성서공회
KOREAN BIBLE SOCIETY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CC



관람 안내·예약